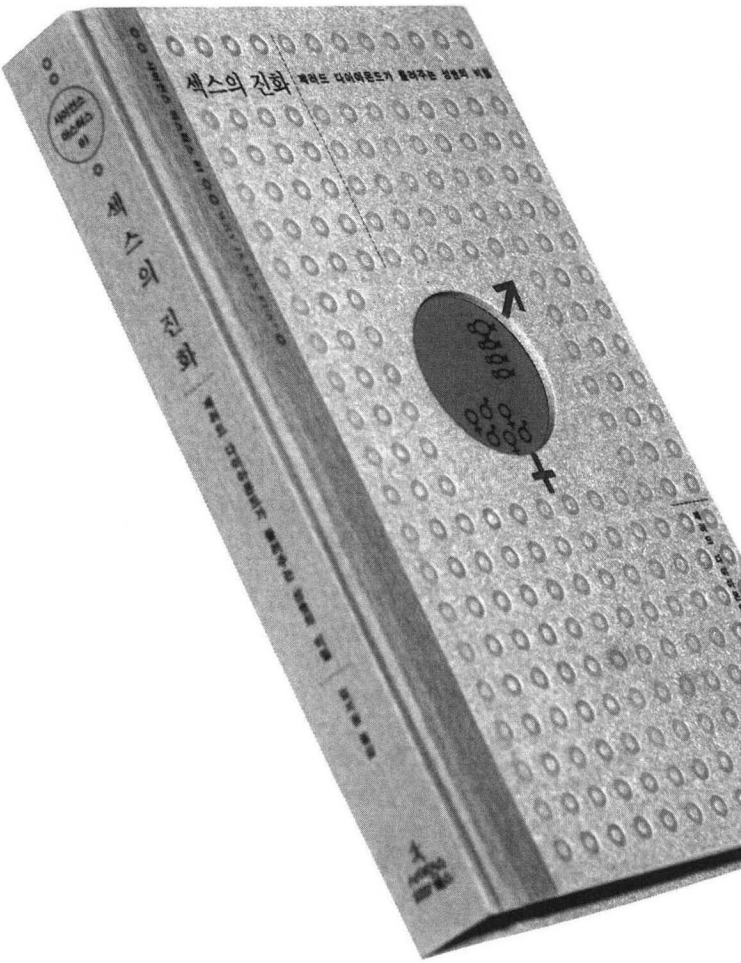


‘성性’, 그 복잡다단한 의미 성적 습성 변화와 문명의 태도



《성스의 진화》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음 | 임지원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94쪽 | 값 13,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그렇겠다! 생물이 진화를 해 왔으니 섹스, 성性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어느 것 하나 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진화(進化)가 무엇인가. 사전에서는 진화란, “생물이 외계(外界)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하여,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동종(同種)에서 이종(異種)으로 그 체제를 향상하여 감”이라 쓰며 아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진화는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진화(evolution)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새로운 종, 신종(新種, new species)을 형성하는 것이 진화다. 사실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개념을 빼면 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다윈이고, 그러므로 다윈을 무시하고선 생물학이 없다. 진화는 혁명이다! Evolution is Revolution! 새로운 종이 생기는 기전(mechanism)은 여럿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돌연변이(突然變異, mutation)다. 엉뚱한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왜 젓소는 새끼를 낳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젓을 쏟아내는 것일까? 어디 그 뿐인가? 닭장 속의 저 닭들은 어찌하여 매일 알을 낳아대는 것일까? 토종닭은 스무 개 남짓 낳고 나면 알 낳기를 그치는데... 모두 다 돌연변이로 생겨난 것들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다른 동물이 하지 않는 짓을 할까? 만 동물들은 발정기에만 흘레붙는데 어찌서 인간은 쉽없이 사랑을 하는가? 묘한 일이다! 아마도 옛날, 그 옛날에는 사람도 다른 동물과 다름없었으나, 갑자기 돌연변이로 괴이한(?), 정력 좋은 인간이 탄생하였고(신종?) 그 후손이 우리일 것이다. 멋진 이론이 아닌가!? 스태미너가 형편없는 조상은 그리하여 자연도태(自然淘汰, natural selection) 되고 말았다! 이것은 오직 필자의 주장(설)임을 밝혀둔다.

책으로 들어가 보자. 《성스의 진화》의 원제목은 ‘왜 성은 즐거운가? WHY IS SEX FUN?’ 이고, 부제는 ‘인간 성의 진화(The Evolution of Human Sex)’다. 저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생리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특히 뉴기니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현장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붕괴(Collapse)》, 《제3의 침팬지(The Third Chimpanzee)》,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 등이 있는데, 마지막 저서로 1998년 풀리처상을 받았다.

이 책은 자그마하면서도 아주 도톰한 것이 내용처럼 실속 있고 야무지게 생겼다. ‘천의 얼굴을 가진 섹스’라고 제목을 붙여 써둔 옮긴이의 말에서, 제일 처음 글이 그럴듯하

게 마음에 와 닿는다. “성^性, sex은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 인간을 창조해 내는 어마어마하고 신비로운 절차이며,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성은 유희의 도구이기도 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남용과 착취와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저자 다이아몬드는 인간만의 독특한 성적 습성들이,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언어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성이란 복잡다단한 의미를 소유한 ‘괴이한 물건’이라 하겠다.

첫 장 <가장 특이한 성생활을 즐기는 동물>의 첫 마디다. 개에게 인간의 성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개 가라사대, “인간들은 아무때고 섹스를 하더군. 생리 직후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슬그머니 꼬이더라… 저 부부는 말이지 마누라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도 줄곧 그 짓을 하고… 세상에, 노인네들조차 섹스를 하지 뭐냐. 존의 어머니는 그 폐경기가 뭐냐 하는 것을 겪은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도…” 에이, 참 창피하다! 다른 영장류나 개들은 폐경이라는 것이 없지 않은가.

2장 <성의 전쟁>에서는, 지구의 수많은 동물들의 암수의 특징, 즉 자식을 얼마만큼 부(암수)가 책임을 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간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동물의 수컷 대부분은 암컷에 비해서 새끼를 돌보는 데 거의 혹은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다. 그러면서 예외를 예시(例示)하고 있다. “지느러미발도요새는 수컷이 알을 도맡아 품어 부화시키고 어린 새끼를 키운다. 그동안 암컷은 자신을 임신시켜줄 다른 수컷을 찾아 날아가 버린다. 해마나 산파 개구리들의 수컷은 등지나 자신의 입, 주머니에 알을 넣어 보호하고 부화시킨다.” 이런 사실을 사람에게 대입을 시켜나가니 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너무나 다양한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암수와 자식관계! 인간이 본받아야 할 그네들의 사랑 이야기가 결죽하게 펼쳐진다. 수놈은 바람을 피워서(라도) 제 유전자DNA를 많이, 널리 퍼뜨리려 하고, 암놈은 강하고 멋있는 유전자를 받으려한다.

3장 <왜 남자는 젖을 먹이지 않을까?>도 자못 흥미롭다. 4,300종이나 되는 포유류 중에서 수놈이 젖을 먹이는 것은 한 종도 없다. 물론 수컷이 임신하는 종도 하나도 없다. 오직 암놈만이 갖는 특권이다. 왜 그럴까? 답은 이렇다. “수사자가 진정 제 새끼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새끼사자의 목숨을 노리는 하이어나나 다른 사자들을 쫓아버리는 일이 아닐까?” ‘사자’ 대신에 ‘사람’을

넣어보면 되리라. 그러므로 무능한 남자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

4장 <사랑해서는 안 될 때>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이 왜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아끼는 교미를 하는가? 사랑이 해박(해박)가 되는 원인 여섯 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해 놨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 법칙을 위반하는가? 저자(과학자)의 예리한 분석과 판단에 보통 사람들(생물학을 전공하지 않는)도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다.

5장 <남자는 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의 결론 부위에, “헌신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인 쪽이 남편보다 2배나 많은 시간을 자신이 맡은 책임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주,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남자들의 기여도가 그나마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반성할 지어다! “여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지만 하나도 표가 나지 않는다”고 우리 집사람의 불평도 하늘 똥구멍을 쑤신다. 날더러 설거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나. 비록 내(필자)가 설거지 한다고 달려들더라도 “내 죽기 전에는 하지 마소”라고 말해야지 무슨 소리요 하고 다툼다.

6장 <폐경기의 진화론>에서는 할머니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탄자니아의 하드자족族을 연구한 결과, 하루에 기혼여성이 먹을 것을 구해 일하는 시간이 4, 5시간인데 비해 할머니는 무려 7시간이나 되었다…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돌봐줌으로써 성인인 자식들이 할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이 손자 키우고 집안일을 돕는지 모른다. 세상을 달리하신 내 어머니도 손자 다섯을 다 키우셨다. 이것이 폐경기 후에도 살아남는 이유다. 하여 노인은 절대로 퇴물(退物)이 아니다.

이 책은 7장 <섹스어필의 진실>로 끝을 맺는다. 모든 동물은 상대에게서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치장을 한다. 털, 깃털, 부리, 꼬리 털, 수염 등 그 예를 일일이 다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말한 ‘성의 선택(sexual selection)’인 것이다.

번역한 책을 손에 잡으면 언제나 느껴지는 것이 있다. ‘원문보다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관 말이다.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옮긴이 임지원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번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가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하여 옮겼기에 우리 책을 읽듯 술술 읽힌다. ‘섹스’란 말이 얼마나 어필(appeal)하는 단언가!? 일독을 권한다. 재미나는 책이다! 